

# 옛 전·일방부지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 광주시, 챔피언스시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4315세대 규모...1차 10월 착공, 2029년 완공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광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아파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23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사업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올 뉴 챔피언스시티'(약칭 챔피언스시티)가 지난 20일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토지 계약 체결로 시작돼 2021년부터 1년여간 진행된 근대건축물 보존TF 협의, 2023년 사전협상 완료

2024년 통합심의 등 약 5년에 걸친 주요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챔피언스시티는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약 29만8000㎡(약 9만평) 부지에 총 4315세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디벨로퍼형 복합개발로 조성될 예정이다. 디벨로퍼형 복합개발은 초기 기획부터 브랜드 유치, 운영 전략까지 디벨로퍼가 직접 설계하는 통합 개발 모델로,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챔피언스시티는 하나의 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가 적용된다. 특히 중심에는 '어반 코어(Urban Core)' 개념을 반영한 보행 중심의 동선이 설계돼, 백화점, 호텔, 공원,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단지 내 도보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도심 속 자족형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입주민은 물론 지역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발은 민간 주도임에도 6000여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재원이 확보돼, 도시 인프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원은 공공시설 확충, 도시환경 개선, 역사공원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는 이번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함께 부지 내 핵심 시설 개발도 순조

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로 조성될 '더현대 광주'는 지난 18일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에 돌입했으며, 부지 내 호텔 건립 사업에는 신라호텔 등 국내외 특급호텔 브랜드들이 입점 희망의사를 밝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챔피언스시티 관계자는 "챔피언스시티는 광주 남부권의 생활·상업·문화 중심축이자, 지역 고성장 소비 유발,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챔피언스시티의 주택 사업은 하반기 2블록 3216세대의 1차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인스퍼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0월 착공 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李대통령, '일하는 정부'로 꾸렸다

### 현역의원 5명 발탁...야 검증공세 차단 효과 보수·기업·노동계 등도 임명...인사 편중 불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장관급 내각 인사 11명을 대거 지명하고 1명의 유임을 발표한 배경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안보상황 속에서 조각 작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기 전이지만, 총리의 제청권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의 진용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도 엿보인다. 동시에 김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고려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권을 향해 협조를 요구하며 역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내각 명단 12명 가운데 41.7%에 달하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구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미 지명된 김 총리 후보자를 포함하면 벌써 6명의 현역 의원이 임명되는 셈이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구성돼 여전히 국정 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손발을 맞춰 온 이들이 서둘러 공직사회를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 발표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기조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면 누구든 중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해 온 권오을 전 의원을 보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을 거친 배경훈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한성수 후보자 등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이는 인사가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민주당의 오른쪽만이 아니라 왼쪽에서도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 ▶1면 '정부 추경예산'서 계속

전남도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정부 주도 사업과 별도 지역 현안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전체 추경 규모 7134억원의 20%인 1460억원(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을 확보해 잠재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 반영돼 연구시설장비 도입 등 학사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게 됐다. 지역 연관사업으로는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민생지원금 357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8억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 34억원,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마린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원,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 7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이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 절차 등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한마음대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감동 해설로 ‘글로벌 관광 전남’ 실현”

### 전남문화관광해설사, 장성서 한마음대회 300여명 참석

전남도는 23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전남 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한마음대회를 열어 상호 교류 증대 및 화합의 시간을 갖고, '글로벌 관광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22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간 통합 한마당 행사로 진행됐으며, 필암서원, 황룡강 등 주요 관광지 답사로 해설사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장성 농악대와 함께하는 대동 한마음대회를 통해 해설사 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 전남 관광의 최일선에서 감동을 주는 해설로 '글로벌 관광전남'을 실현하

기로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전남 관광객이 무려 788만 명으로 역대 5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활동해온 문화관광해설사 덕분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가을부터 시작하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년 여수세계제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 대표산업, AI 융합... 'AI 중심도시' 도약 시·인공지능사업단,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광주 대표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 AI 전문기업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AI 기반 신제품·서비스·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사업단은 인공지능 융합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AI 산업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과제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

원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광주지역에 분사, 지사, 연구소를 둔 AI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데이터산업,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컬스캐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부품 등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 7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집적단지) 내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활용해 AI 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장성기 기자 sky@gwangnam.co.kr